

내가 쓰는 워드프로세서

송 현

(한글기계화추진회장,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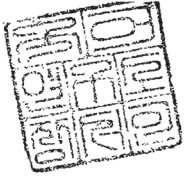
1.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컴퓨터 입문서

나는 3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만져본 적은커녕 가까이서 제대로 본 적도 없었다. 그 때 매스컴에서 하도 “컴퓨터, 컴퓨터”하고 떠들기에 나는 컴퓨터에 대한 입문서라도 사서 읽어보겠다고 교보 문고에 갔던 적이 있다. 교보 문고에 갔더니 그 큰 책방의 한쪽 구석이 온통 컴퓨터에 관한 책들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그 많은 책 중에서 컴퓨터 입문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을 뽑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입문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의 설명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입문서를 샀다.

“컴퓨터란 원래 어려운 것이니까, 이 정도는 참고 읽어보면 배울 수 있겠지……”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읽어보아도 요령부득이었다. 결국은 입문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한 동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입문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입문서를 던져버렸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은 그 때 생각을 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 때 내가 컴퓨터 입문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컴퓨터가 원래 어려운 것이어서도 아니고 나의 머



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 입문서를 던져버린 이유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었다! 뉘튼게 안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공학 쪽의 사람들이 문장을 어렵게 쓰는 편이다. 일부는 문장 실력이 빈약한 탓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란 사람들은 남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물론 나같은 사람은 집에서 친구가 나갈 경우에 휴즈도 갈아 꽃을 즐도 모를 정도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고, 여름 철에 방충망도 제대로 못해서 나의 아내가 보다못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정도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무당 짓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때가 있다. 내가 컴퓨터를 구입하여 선무당 짓을 한 것이 바로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3년 전에 컴퓨터 입문서를 던져버린 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세운 상가의 4층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는 컴퓨터 상가에 구경을 갔다. 나는 그 날 세운 상가에 의외로 중학생들과 고등 학생들 심지어 국민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기 웃하면서 돌아다녀 보았더니,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용기를 가지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선생님께서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쓰시고자 합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주로 원고를 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워드프로세서를 배우면 되겠군요.”

“워드프로세서가 무엇입니까?”

“워드프로세서란 타자기와 컴퓨터를 한 데 합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타자기와 컴퓨터를 합쳤다면 그거 참 편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워드프로세서란 글쓰는 분들에게 참으로 편리한 기계입니다.”

“배우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 혹시 타자를 칠 줄 아십니까?”

“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한 이틀 연습하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요?”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면서 되물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틀이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럼, 그게 값이 얼마나 합니까?”

“그 유명한 애플 기종으로 한 세트에 약 120 만 원 정도입니다.”

“한 세트란 무엇무엇을 말합니까?”

“한 세트란, 글자를 쳐넣는 입력 키보드와 쳐넣은 글자가 나타나는 화면과 글자를 보관하고 또 보관한 것을 찾아내는 드라이브와 글자를 찍어내는 프린트를 한 세트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한 세트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120 만 원이란 거금이 부담스러워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혹시 장기 월부로 판매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단기 월부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가게가 영세해서 월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2. 용기와 결단

미인을 얻으려면 남자가 용감하고 결단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더러는 중요한 결단을 용기 있게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득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십년 전에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선생노릇을 할 때, 아동 문학가 주 종식 선생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타자기를 꺼내더니 나의 원고를 순식간에 깨끗이 정서해 주는 것을 본 순간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에게 물었다.

“나같이 손재주 없는 사람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연습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배워서 손으로 쓰는 것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값이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더니, 3개월 할부로 약 6만 원 정도 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타자기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타자기를 사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주 선생의 말을 믿고 타자기를 즉석에서 구입하겠다고 내린 결단이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을 몰랐고, 또 그 바람에 한글 기계화 연구가로 손꼽은 연구가가 될 줄도 몰랐고, 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책을 집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때 생각이 나서 세운 상가에서 돌아온 뒤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돈 120만 원을 빚을 내어서 세운 상가로 달려갔다.

세운 상가로 가서 컴퓨터를 샀다. 나는 꼬치꼬치 묻고 또 꼬치꼬치 메모를 하였다. 그날 밤 나는 밤새껏 메모를 보면서 연습을 하였다. 하룻 저녁 연습을 하니까 대충 기본적인 것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하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집에 두고 썼는데,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타자기로 일을 하자니 정말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금 용단을 내어서 워드프로세서를 한 세트 더 구입하였다. 그러자 나는 집에서 하던 일을 디스크에 담아서 디스크만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다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또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디스켓에 담아서 집에 가지고 가면 다시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3.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집필 출판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많은 원고를 썼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글 글자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한 데 묶어서 한글 글자꼴에 대한 학문을 정립한 “한글자형학”을 월간 디자인 출판부에서 지난 해에 출판을 한 것이다. 나는 “한글자형학”을 집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약, 워드프로세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런 책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만들 수가 없을 거야!”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 동안 썼던 비평들을 모아서 비평집을 출간하였다. 올해 정월부터 썼던 비평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고를 모으니 벌써 한 권의 책이 될 분량이 가까와졌다. 그래서 나는 올해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썼던 비평들과 전에 타자기로 썼던 비평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몇 편 추려서 한 데 묶어서 “우리시대 시민정신”이란 제목의 비평집을 출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비평집을 한 권 출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손으로 원고를 썼다면 아마 그 동안 그 정도의 비평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드프로세서를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편의 비평을 쓸 수 있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애플 워드프로세서를 이 년 가까이 써 오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아이비엠 워드프로세서로 바꾸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전에 하던 일을 더욱 빨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애플을 이용하여 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람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여간 기쁘지 않다.

4. 한 달에 워드프로세서로 쓴 원고의 양

내가 한 달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글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의 일기 한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이 달에 워드프로세서로 여러 가지 글을 썼다. 그 중에서 잡지사나 신문사에 써 준 것을 소개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월간 시문학에 시낭송에 대한 논문을 연재해 오는데 100매를 썼고, 월간 유니어에 소설을 연재해 오는데 소설을 50매 썼고, 월간 광장에 한글날 특집 원고 100매 썼고, 월간 디자인사의 10월호 특집 호에 글자꼴에 관한 논문을 100매 썼고, 동서문학에 워드프로세서에 관한 글을 40매 썼고, 소설문학에 비슷한 글을 30매 썼고, 명지대학보사에 30매, 한성대학보사에 30매, 지식산업사에서 내는 무크지에 60매짜리 동화를 한 편 써 주었고, 풀빛사에서 내는 무크지에 교과서를 분석하는 글을 70매 써 주었고, 한길사에서 나오는 동화집에 실을 원고를 60매 써 주었고, 종로서적 출판부에서 나오는 동화책 원고로 600매를 써 주었고, 햇빛 출판사에다 잡문을 25매 써 주었다. 그러니까 1275매를 써 주었다.

나는 요즘 월 1000매 정도의 원고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손으로 한다면 정말 아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원고는 전적으로 밤에만 쓴다. 낮에는 내가 나가는 연구소의 일로 단 한 줄의 글을 쓸 형편이 못된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은 모두 밤에 쓴다. 밤시간만 이용하여 이런 정도의 글을 쓴다는 것은 손으로 쓴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니까 가능한 것이다.”

정보 사회는 글자 생산 수단을 기계화하지 않으면 정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정보 사회는 글자를 손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고, 타자기나 컴퓨터로 치는 시대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런 과학적인 글자, 한글을 가지고 있다. 이 한글은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는 이 문화 유산을 더욱 값고 닦아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쓰는 워드프로세서는 공 병우식 글자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비과학적인 2벌식 자판보다 더욱 편리하고 또 빠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에서 축복받은 몇 안되는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